



문화행정국 정례 브리핑

# 현안 · 사업 추진 민원서비스 설명

민선 7기 정읍시가 소통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과 시정 동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부터 월 2회 언론인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서별 현안과 각종 사업 추진상황, 시민에게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정 주요 현안과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의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정방향과 정책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한발 앞서가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매월 2회 정례 브리핑으로 소통 강화·책임행정 ↑

이달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에 시정 정례 브리핑을 갖는다. 정례 브리핑은 시정 방향·역점시책·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국·단·실과 소장(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소통 확대'라는 브리핑 도입 취지도 최대한 살릴 예정이다. 유 시장은 "시민생활과 각종 사업 추진 현장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정례 브리핑은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첫 브리핑 문화행정국... 소관업무 추진 방향 등 제시

첫 번째 브리핑은 지난 14일 김병근 문화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자 승진인사로 문화행정국장을 맡은 김 국장은 이날 "지속가능한 정읍의 미래 성장 비전과 실천 전략을 마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주요 소관업무를 브리핑했다.

김 국장은 ▲고품격 인문관광도시 발돋움 ▲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행정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 자원 확보 방안 ▲토지 경제 바로 잡기와 지적 디지털 강화 정책 등 4개 테마에 대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동화농민혁명선양사업 추진 방향과 현황 ▲자주재정 실현 방안 ▲정읍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 등을 주제로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이 진행됐는데, 사안에 따라 김국장과 해당 과장이 답변에 나섰다.

## 매월 2회 정례 브리핑... 시 문화행정국서 첫 브리핑 진행 문화특화지역조성 추진·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등 펼쳐

### ◇고품격 인문관광도시 발돋움 하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정읍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창조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높임은 물론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에 선정되면서 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각종 공연 등을 통해 도시활성화를 꾀하고 창조적인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매년 7억5,000만원씩 5년간 총 3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예비사업 및 지정 심의를 거쳐 5년 간 최대 200억원이 지원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고품격 문화도시 정읍'의 가치를 높인다는 각오다.

### ◇정읍문화의 품격을 높인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은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한 첫 프로젝트다. 근대 여성화가인 나혜석부터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까지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한국근현대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 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무료이다. 지난달 24일 개막했으며, 4월

20일까지 석달 간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 휴관). 호평이 이어지면서 지난 설 연휴기간에만 2,100여명이 찾은 등 개막이후 이달 현재까지 모두 4,300여명이 다녀 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읍 외 지역에서도 1천500여명이 찾았다.

### ◇달리면서 혁명의 숨결을 새긴다!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이달 24일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화톳현 전승일(5월 11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마감한 신청 접수 결과 정읍 외 지역 2,946명, 지역 내 1,052명 모두 4,015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풀코스는 종합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 출발해 용흥교차로, 샘골다리 사거리, 송죽삼거리를 거쳐 내장산탐방안내소를 유턴 한 후 다시 경기장으로 끝나는 구간이다. 특히 대회에는 최연소 마라토너로 유명한 김성군 군이 출전하는 가운데 'SBS 영재발굴단'이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읍동학마라톤대회를 전국에 알리는 물론 '동학농민혁명 성지 정읍'의 전국 홍보에도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군은 2013년 6월 20일 생으로 지난 2017년 8월 27일 만 4세 2개월의 나이로 영동 포도 마라톤대회에 참가, 흥미를 가진 이후 크고 작은 마라톤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정읍 동학 마라톤대회



회에서 기량을 과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총 3천만원의 상금이 걸려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나 2만원 상당의 정읍 농·특산물을 준다.

### ◇자주재원을 확충하라...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지주재원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매년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1.3% 늘어난 836억2,900만원(취부세·지방교육세 등의 도세 390억4,600만원,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시세 432억1,600만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예년보다 강화된 특단의 세입 확보 대책을 마련해, 세정 운영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세입 확보 노력을 전개할 계

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올해 목표액은 전년 대비 15.8% 늘어난 229억7000만원이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의 협업과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4~6월, 10~12월)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책임 담당제 운영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적극적인 공매실시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개선으로 실효성 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기로 했다. 한편 2019년 분예산 기준 정읍시의 재정 자립도는 8.45%, 재정 자주도는 57.13%이다.

### ◇바른 땅 만들기·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착착' '바른 땅' 만들기 사업인 지적재조사(디지털지적 구축)사업도 착착 진행된다.

이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현실경계를 반영하여 지적도면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정명동과 상동 일원의 장명상동지구와 신대인읍 신대리 일원 신대인2지구를 사업지구로 예비선정하고 지난 11일 전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그간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토지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